

# SM·이수만 가치분 공방 승자는?...법원 조만간 결론

### 법원, 전달까지 양측 추가 서면 의견 제출 받아 “오는 6일 전까지 결론 내려 달라” 법원에 요청 이수만 측 “법리적 발행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SM 측 “경영 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신주 발행”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이 조만간 결론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전달까지 양측의 추가 서면 의견을 제출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심문기일에서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문기일 이후 카카오는 지난달 24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현 SM 경영진 측도 지난달 24일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이 전 총괄 측도 지난달 27일 보충서면을 냈고, 하이브는 전달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 나온 양측 주장과 추가로 접수된 서면 의견을 검토해 조

만간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원고인 이 전 총괄 측이 오는 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 달라요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다. 이 전 총괄 측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을 위한 편법 취득이라며 가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전 총괄 대리인은 지난달 22일 첫 심문기일에서 “카카오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법리적으로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답변서 내용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M 경영진 측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에 의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M 대리인은 심문기일 당시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주 발행은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이슬 기자



반일행동, 소녀상 사수 집회 제104주년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 전남도, 막바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고삐 조여

### 위기단계 '심각' 유지...특별방역대책기간 3월 말까지 연장

전남도가 3월 말까지 한 달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 10일 이후 49일간 AI 추가 발생이 없어 소독 등 방역에 느슨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역체계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지속적인 철새 유입과 가금농장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입식농가 증가 등 추가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선제 조치에 나섰다. 이에 전남도는 위기단계를 현행과 같이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도 기존처럼 가동한다. 또 검사 주기 단축, 전체 가금(닭·오리)에 대한 출하 전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도 지속 유지한다. 기존에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단축된 일제 입식·출하 기간(육계 5일·오리 당일)도 유지한다. 방역대 해제지역에 신규 입식하는 오리농장은 계열사, 도, 시·군, 검역본부가 3단계 점검을 하고, 825명의 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소독과 5대 핵심 방역수칙 전파 체계를 지속한다. 축산차량은 3월 말까지 가금농장과 축산시



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해야 하며, 오염원 제거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 집중 소독기간' 3월까지 한 달 연장 운영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존 오염 지역의 잔존 바이러스 축사 유입과 철새 북상에 따른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니 가금농장에서 소독과 전실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울거울 들어 전국 가금농장에서 부산·울산·강원 각 1건, 경기 12건, 충북 9건, 충남 4건, 전북 7건, 전남 26건, 경북 4건, 경남 3건 등 총 68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했다. 이중 전남에선 나주 7건, 곡성 2건, 고흥·보성·장흥·해남 각 1건, 영암 5건, 무안 4건, 함평 4건 등 총 26건이 발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